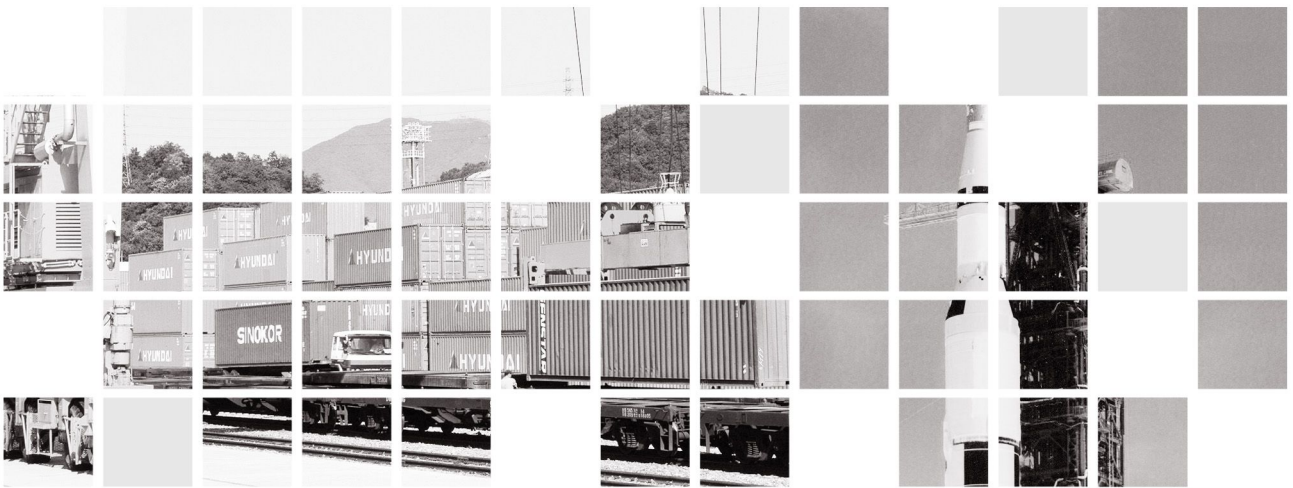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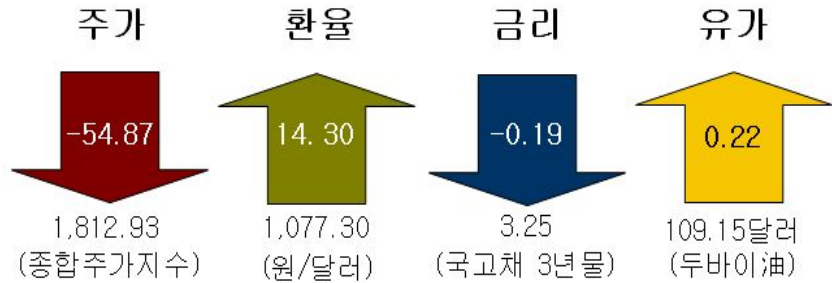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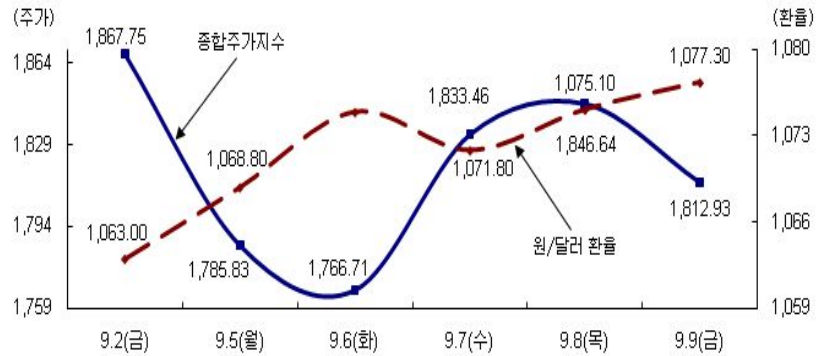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9.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경 제 연 구 본 부 (2072-6218, limhj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 2012년 대외 경제 여건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2012년 하반기에 가서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신흥국 경제의 2012년 성장률은 2011년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

**세계 교역 증가율 소폭 하락** :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미약** :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가격 상승세 미약. 단, 달러화 약세, OPEC 여유생산 능력 감소, 신흥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원유 가격이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지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 미국 달러화는 2012년 중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 초저금리 기조 유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 2012년 국내 경제 부문별 경제 전망

**2012년 한국 경제 4.0% 성장 예상** : 내수 경기는 2011년 기조가 유지될 것이나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 4.2%에서 4.0%로 소폭 하락 전망.

**소비 증가세 횡보** :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세 소폭 둔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1년 수준에서 횡보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세 소폭 둔화** : 선진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 전망.

**건설투자 소폭 증가** : 기저효과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다소 반등이 기대되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약세,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 축소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 : 對신흥개도국 수출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 약화로 對선진국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경기가 2011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의 미약한 상승세,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보다 높아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물가는 큰 폭으로 하락**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원화절상 추세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 전망.

**고용은 회복세 둔화** : 선진국 경기 둔화 및 국내 투자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고용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경기 회복세 둔화,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 2012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재정 건전성 우려, 가계발 복합불황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정책과제** :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등이 요망됨.

· **첫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개선 정책 지속.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둘째,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마이스터고 등 기능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턴십과 직장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 중소기업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제도의 수정 또는 추가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마련.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

· **넷째,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 당국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 및 규제 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미시 및 시장원리적인 접근 필요. 가계는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

· **다섯째,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 강화 및 남북 협력 사업 등 다자 협력 사업 추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비정치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관계 회복 노력 필요.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 지속.

< 2012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6.2	4.2	4.0
	민간소비(%)	4.1	3.3	3.4
	건설투자(%)	-1.4	-3.6	0.5
	설비투자 (%)	25.0	8.8	7.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82.1	160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303	240
	수 출 (억 달러)	4,664	5,597	6,381
	(증가율, %)	28.3	20.0	14.0
	수 입 (억 달러)	4,252	5,294	6,141
	(증가율, %)	31.6	24.5	16.0
소비자물가(평균, %)		2.9	4.3	3.5
실업률(평균, %)		3.7	3.5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56	1,085	1,050
국고채 수익률(3년)		3.7	3.8	4.0

## I. 2011년 경제 특징과 문제점

- 국내 경제는 선진국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었음
  - 미국 등 선진국 신용강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지속 :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여 G20 국가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성장률 기록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11년 한국 경제 성장률(4.2%)은 중국(9.6%), 인도(8.2%), 아르헨티나(6.0%), 터키(4.6%), 멕시코(4.6%), 브라질(4.5%)에 이어 G20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고 선진국 중에서는 1위임
  - 경상수지는 2010년 대비 규모는 줄었으나 흑자 기조 유지 :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수출은 2011년 1~8월까지 3,707.2억 달러로 24.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3,478.8억 달러로 26.4% 증가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28.4억 달러(1~8월)와 130.4억 달러(1~7월) 흑자
-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상존함
  -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 :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아짐으로써 체감 경기 회복 미흡
    -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4분기 4.2%, 2/4분기 3.4%인데 비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11년 1/4분기 1.8%, 2/4분기 0.6%를 기록
  - 수출 호조속에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 수출증가율 2010년 28.3%, 2011년 1/4분기 29.6, 2/4분기 18.7%로 높은 수준 지속
    - 민간소비는 2010년 4.1%, 2011년 1/4분기 2.8%, 2/4분기 3.0%로 하락세. 건설투자는 2010년 -1.4%, 2011년 1/4분기 -11.9%, 2/4분기 -8.6%로 급락
  - 금융서비스 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큰 폭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짐
    - 금융서비스 수지가 2010년 19.9억 달러, 2011년(1월~7월) 1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는 2010년에 112.3억 달러 적자, 2011년에도(1월~7월) 40.2억 달러의 적자 기록

-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 지속**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 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지속
  -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반기에도 7월 11.2%, 8월 13.3%로 상승세이고, 전기료 및 버스요금 등도 인상. 국내 소비자물가가 2011년에 들어 4.1% 이상의 상승률 지속하여 8월에는 5%를 상회
  - 두바이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두바이유는 2011년 8월 배럴당 평균 105.0달러로 1월 이후 100달러 이상 기록
- **전반적인 고용시장 개선에도 청년 실업 회복 미흡** : 실업률이 3% 초반으로 하향 안정되었으나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
  -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11년 7월 현재 3.3%로 낮아짐.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7.6%로 평균 실업률보다 2.3배 높음
- **선진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글로벌 금융 충격으로 인해 국내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 함
  - 미국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 주가가 7월 29일 2133.2에서 8월 12일 1,793.2로 15.9% 급락.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큰 폭으로 급등락.
  - 원화 환율은 7월 29일 1,054.5에서 8월 12일 1,078.5원으로 원화 가치가 2.3% 하락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단위 : %, 억 달러)

성장률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내수	민간소비	0.0	6.6	3.5	3.6	2.9	4.1	2.8	3.1	-
	건설투자	3.4	4.3	-2.3	-3.1	-2.9	-1.4	-11.9	-8.6	-
	설비투자	-9.8	29.1	30.5	26.6	15.9	25.0	11.7	7.6	-
외수	경상수지	328	2.6	88.6	99.3	91.6	282.1	26.1	54.9	49.4
	무역수지	405	29.3	146.1	106.2	130.2	412.0	73.3	83.8	71.4
	수출	3,635	1011	1202	1163	1287	4,664	1,310.0	1,447.4	969.8
	증가율	-13.9	35.8	33.1	22.7	23.8	28.3	29.6	18.7	26.1
	수입	3,231	982	1056	1057	1157	4,252	1,236.7	1,343.6	898.4
	증가율	-25.8	37.4	42.8	24.6	24.6	31.6	26.0	27.2	27.1
	서비스수지	-66.4	-42.0	-18.7	-29.5	-22.0	-112.3	-25.4	-7.9	-6.9
증가율	15.8	16.8	45.0	10.9	-17.3	69.1	-39.6	-57.5	-19.6	
고용	실업률	3.6	4.7	3.5	3.5	3.3	3.7	4.2	3.4	3.3
	청년실업률	8.1	9.8	7.7	7.6	7.1	8.0	8.8	7.9	7.6

주 : 1) 내수와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실업률 3/4분기는 7월 자료임.  
 2)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임.  
 3) 무역수지, 수출, 수입 3/4분기는 7월과 8월 자료임. 경상수지 3/4분기는 7월.

## II. 2012년 경제 전망

### 1. 대외 여건 전망

#### 1) 세계 경기 : 회복세 약화

○ 2012년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둔화되고,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선진국 : 경제성장률이 2012년에 2.0%내외 낮은 수준을 기록 전망
  - 미국 : 미국 경제는 2012년에 2.0%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
  - 일본 : 2%초~후반 성장 전망. IMF는 2012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2.9%, OECD 2.2%로 예상
  - 유럽 : 1%대 성장 전망. IMF는 유로경제가 2012년에 1.4% 성장 예상
- 신흥개도국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개도국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 중국 경제는 2011년에도 9%대 성장 전망. IMF는 2012년 중국성장률을 9.5%, OECD 9.2%로 예상
  - 인도 : IMF는 2012년에 7.8%, OECD는 8.6% 성장 전망
  - 아세안5<sup>1)</sup> : 2012년 성장률은 5.7%로 전년 대비 0.2%p 높은 수준 기록 전망
  - 중동 : 2012년 경제성장률이 4.4%로 2011년에 비해 0.2%p 상승 전망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09년	2010년	2011(E)	2012년(E)		
				OECD	IMF	
				'11년 5월	'11년 4월	'11년 6월/9월
세계	-0.5	5.0	4.2*	-	4.5	4.3*
선진국	-3.4	3.0	2.2	-	2.6	2.6
미국	-3.5	3.0	1.6*	3.1	2.9	2.0*
일본	-6.3	4.0	-0.7	2.2	2.1	2.9
유럽	-4.1	1.7	1.9*	-	1.8	1.4*
신흥개도국	2.7	7.3	6.6	-	6.5	6.4
중국	9.2	10.3	9.6	9.2	9.5	9.5
인도	6.8	10.4	8.2	8.6	7.8	7.8
아세안-5	1.7	6.9	5.4	-	5.7	5.7
중동	1.8	3.8	4.2	-	4.2	4.4
세계 교역량	-10.9	12.4	8.2	8.4	6.9	6.7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June 201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1.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1년 9월(예정). Reuters 재인용.

3) \*는 IMF(2011년 9월, 예정) 수치를 의미함.

주 : IMF의 중동 수치는 북아프리카(North Africa) 포함.

1)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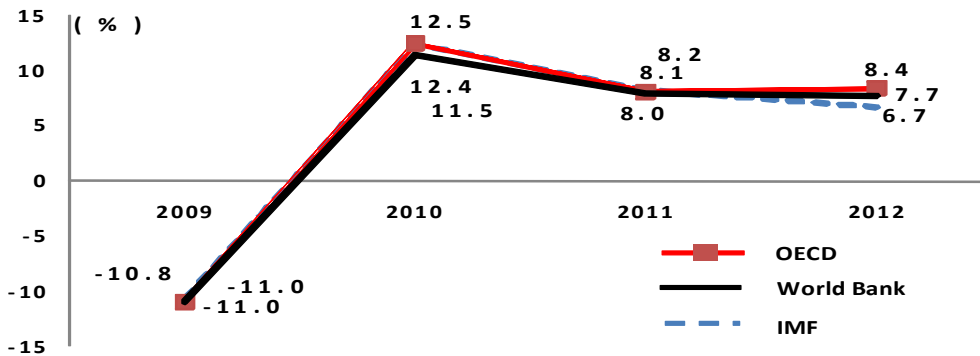


2) 세계 교역 : 증가율 소폭 하락

○ 2011년 세계 교역량은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세계 교역량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국의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하락할 전망

< 해외 주요기관의 세계 교역량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ne 2011. OECD, *Economic Outlook No.89* May 201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Summer 2011*

○ 2012년에도 미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요인으로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개도국의 내수증가에 따른 성장세 유지로 세계 교역량은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 미국의 회복세 약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지속 등 요인으로 선진국의 수출과 수입은 2011년 6.8%, 6.0%에서 2012년 6.1%, 5.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신흥개도국 :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 약화에 따라 신흥개도국 수출과 수입은 2011년 11.2%, 12.1%에서 2012년 8.3%, 9.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승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수출입 전망 >

구분	2009	2010	2011(E)		2012(E)		
			'11년 4월	'11년 6월	'11년 4월	'11년 6월	
세계 무역 증가율	-10.8	12.4	7.4	8.2	6.9	6.7	
수출	선진국	-12.0	12.3	6.8	6.8	5.9	6.1
	신흥 개도국	-7.9	12.8	8.8	11.2	8.7	8.3
수입	선진국	-12.5	11.6	5.8	6.0	5.5	5.1
	신흥 개도국	-7.9	13.7	10.2	12.1	9.4	9.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June 2011

3) 국제 원자재 :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승세 약화

- (현황) 2011년 신흥국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되며 변동성이 확대
  - 곡물, 원유, 금속 등의 주요 17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다 2011년 8월 하락세로 전환
  - CRB지수는 2010년 1/4분기말 359.43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1년 8월 342.57로 하락세로 전환
  - 구리도 7월 말 톤당 9,750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 Dubai유는 2011년 8월 배럴당 평균 104.89 달러로 4월 115.76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
  - WTI유는 2010년 8월 배럴당 평균 86.21 달러로 4월 109.96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단위 : 달러/배럴, p, \$/oz, \$/ton, cent/bu)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유가	Dubai	61.92	77.34	74.05	75.20	88.95	78.13	108.53	107.50	110.15	104.76
	WTI	61.94	81.25	75.29	75.25	89.16	79.49	102.97	96.26	97.30	86.21
원자재	CRB	283.38	273.34	258.52	286.86	332.80	332.80	359.43	338.05	342.08	342.57
	금	1,095.2	1,113.3	1,245.5	1,307.8	1,421.1	1,421.1	1,438.9	1,502.3	1,628.3	1,828.5
	구리	7,377	7,842	6,542	8,055	9,665	9,665	9,409	9,315	9,750	9,119
	옥수수	414	345	354	496	629	629	693	629	665	756.2

자료 : Reuter EconWins,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 주 : 1) 원유 가격 분기값은 3, 6, 9, 12월 평균 수치이고 7월, 8월은 월평균, 연간은 연평균 수치임
- 2) 원자재 가격 수치는 연말, 월말, 분기는 3월, 6월, 9월, 12월 말 수치임

- (전망) 2012년 세계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 가격 상승세 미약 단 달러화 약세, OPEC 여유생산능력 감소, 신흥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원유 가격 상승세가 미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가격 변동성 확대

- 산업, 곡물, 비철금속 원자재 및 유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나 약화
  - 2012년 원자재 가격은 전년대비 산업 4.9%, 곡물 1.6%, 비철금속 9.8% 상승 전망
  - 2012년 두바이유는 112.75달러, WTI유는 102.12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 3.9% 상승

< 원자재 가격 전망 >

(2010=100)

구 분	2010	2011	2012
산업 원자재	100	123	129
곡물 원자재	100	118	120
비철금속	100	122	134

< CERA 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 분	2011년		2012년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Dubai	115.75	109.49	112.78	112.94	111.96	113.31	112.75
WTI	100.50	98.25	102.04	102.09	102.15	102.20	102.12

자료 :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자료 : CERA

Cycle Institutes, 2011. 5. 16

주 : 기준유가 일일 증가 평균치, 전망시기는 2011. 8. 3.

4) 주요국 환율 : 달러화 약세 기조

○ (현황) 2011년 글로벌 달러화는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어 약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강세

- 달러화지수는 2011년 9월 6일 기준 75.9p로 연초 79.1p에 비해 -3.2p 하락

○ (전망) 글로벌 달러화는 2012년 중 달러 신뢰도 하락과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약세가 이어질 전망

- 글로벌 달러 : 2012년에 글로벌 달러화는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약화 및 미국 경제의 회복지연 우려가 증대되어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

- 유로 : 유럽 국가들의 채무 위기, 금융불안 지속 및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 둔화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기록할 전망

- 엔화 : 일본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 엔화의 안전자산 부각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엔화 강세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으로 2012년 엔화는 횡보할 전망

- 위안화 :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불균형 재조정을 위한 경상수지 흑자국가 통화상승 압력 증대 및 위안화의 무역결제 확대 등으로 위안화 환율은 절상될 전망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3957	1.4250	1.4158	76.21	77.83	81.51	6.32	6.24	6.10
최고	1.5000	1.5000	1.5500	80.00	86.00	90.00	6.41	6.35	6.22
최저	1.0400	1.3000	1.2700	72.00	72.00	74.11	6.20	6.11	5.92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4개 국제투자은행의 2011년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전망치를 이용.

## 2. 대내 경제 지표 전망

### 1) 소비 : 증가세 회복

-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정체되면서 증가세 둔화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1%였으나, 2011년 상반기 2.9%의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세 소폭 둔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회복
  - 소비 증가 요인: 물가상승세 완화로 가처분소득 증가
    - 물가상승세가 2011년 4.3%에서 2012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소비 감소 요인: 고용회복세 둔화,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2년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 가계부채 규모 증가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 강화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 소비지출전망 CSI가 2011년 8월 이후 소폭 하락

#### < 민간소비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2.7	9.7	4.9	7.5	5.1	6.6	5.1	5.7	5.3	-
가처분소득 증가율(%)	-2.1	4.4	4.0	2.7	0.1	2.7	-0.3	0.0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7	2.6	2.9	3.6	2.9	4.5	4.2	4.7	-
취업자 증가수(천명)	-72	132	433	369	358	323	423	402	335	-
가계신용 증가율(%)	6.6	8.1	8.2	8.0	8.4	8.4	8.4	9.1	-	-
소비지출전망 CSI(p)	112	111	112	112	112	112	109	109	109	1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소비지출전망CSI는 마지막월 기준. 가계신용증가율은 말잔 기준.

- 이에 따라 201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3.4%로 전망

####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구분	2009년	2010	2011년(E)	2012년(E)
민간소비증가율(%)	0.0	4.1	3.3	3.4

자료 : 한국은행,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증가세 소폭 둔화

- 201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가 완화되며 2010년에 비해 큰 폭 하락 조정
  - 2010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5.0% 증가하였으나 2011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기저효과가 소진되며 9.5% 증가
- 2012년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율 소폭 하락과 소비 증가율 회복으로 2011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 수출 증가율이 2011년 20.0%에서 2012년 14.0%로 , 소비 증가율은 3.3%에서 3.4%로 회복 전망
  - 설비투자 선행지표 약화 :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2012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위축될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sup>2)</sup>은 2010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
    -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도 1/4분기 17.3%에서 2/4분기 6.4%로 하락
  - 경기전망 불투명 : 경기선행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전망) 하락세가 지속되며 투자수요가 감소할 전망

< 설비투자 관련 주요 경제지표 추이 >

(%, %p)

구 분	2009 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조정압력	-3.7	20.4	12.1	3.4	4.6	9.6	4.1	1.5	-0.6	-
자본재수입액	-21.5	29.7	34.7	28.5	23.1	28.8	17.3	6.4	6.2	-
경기선행지수	-	10.5	7.7	5.4	3.0	-	2.3	1.3	2.0	-
BSI 전망 (제조업)	-	94.3	105.3	103.3	94.0	-	94.0	97.3	90	9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분기별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와 BSI전망치는 분기평균 자료. 9월 BIS전망치는 86을 기록

- 2012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를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설비투자	-9.8	25.0	8.8	7.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조정압력(%p)= 제조업 생산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

### 3) 건설투자 : 소폭 증가

○ 2011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기성 감소 영향으로 2010년에 이어 침체세를 지속

- 201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
-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2011년 1/4분기 -9.4%, 2/4분기 -5.2%를 기록
- 공공부문 건설기성도 7월 -5.9%를 기록

○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 감소 및 공공부문 건설투자 정체에 따라 2012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수주 증가율 하락 :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 건설수주액도 7월 -8.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냄

#### < 건설수주액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민간 부문 (경상)	-20.0	8.0	105.4	13.2	-34.4	2.8	18.2	0.5	-9.3	-
공공 부문 (경상)	63.1	-14.9	-61.9	-22.0	-52.1	-43.7	-49.1	-11.9	-55.5	-

자료 : 통계청.

- 공공부문 투자 정체 : 2012년 공공 건설투자 예산 증가율은 0.9%로 2011년 1.2%에 비해 감소

#### < 공공부문 건설투자 예산 추이 >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S.O.C. 분야	25,111 (1.5)	24,307 (-3.2)	22,390 (-7.9)
공공주택 분야	16,716 (11.3)	18,040 (7.9)	20,325 (12.7)
계	41,827 (5.2)	42,347 (1.2)	42,715 (0.9)

자료 :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2012년 건설투자는 2011년 대비 0.5% 증가할 전망

#### < 건설투자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건설투자	3.4	-1.4	-3.6	0.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4) 대외 거래 : 무역수지 흑자 축소

○ (현황) 2011년 무역수지는 신흥국 중심의 성장세 지속으로 흑자 유지

- 상반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57.1억 달러, 81.0억 달러의 흑자 기록

○ (전망) 2012년은 선진국의 회복 지연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

- 무역수지 : 對선진국의 수출 감소와 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
- 수출 : 對선진국 수출은 미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한 회복세 약화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對신흥개도국 수출은 견조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수출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수입 : 내수경기가 2011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전망

< 한국의 선진국, 신흥개도국 수출 현황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선진국	279 (23.1)	348 (32.4)	322 (20.7)	370 (26.9)	1,318 (25.9)	373 (33.7)	401 (15.2)
신흥개도국	732 (41.4)	854 (33.3)	841 (23.5)	918 (22.6)	3,346 (29.3)	936 (27.9)	1,025 (19.9)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경상수지 : 서비스수지는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경상수지	327.9	2.6	88.6	99.3	91.6	282.1	26.1	54.9
· 상품수지	378.7	47.9	122.4	125.4	123.4	419.0	58.4	76.6
· 서비스수지	-66.4	-42.0	-18.7	-29.5	-22.0	-112.2	-25.4	-8.0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2012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40억 달러, 130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2011년보다 소폭 축소될 전망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경상수지	327.9	282.1	160	130
무역수지	404.5	412.0	303	240
· 수출 (통관)	3,635.3 (-13.9)	4,664.0 (28.3)	5,597 (20.0)	6,381 (14.0)
· 수입 (통관)	3,230.8 (-25.8)	4,252.0 (31.6)	5,294 (24.5)	6,141 (16.0)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5) 물가 : 큰 폭 하락

○ (현황) 2011년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국제원자재와 곡물가 인상, 통화량 증가 등 수요압력 등으로 증가율 상승

-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공공요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2011년 1/4분기 4.5%, 2/4분기 4.2%로 높은 수준 지속
- 2011년초 냉해, 구제역, 하반기 장마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 급등
- 근원물가 상승률도 2010년 4/4분기 1.9%에서 2011년 1/4분기 2.9%, 2/4분기 3.4%로 상승세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소비자물가	2.8	2.7	2.6	2.9	3.6	3.5	4.5	4.2	4.7	5.3
근원물가	3.6	1.9	1.6	1.8	1.9	1.8	2.9	3.4	3.8	4.0
생활물가	2.1	3.4	2.9	3.1	4.1	3.3	4.9	4.1	4.8	5.2
농축수산물	6.5	3.6	5.1	12.5	19.2	10.0	16.6	8.1	11.2	13.3
수입물가	-4.1	-3.1	8.1	7.0	9.7	5.3	16.9	14.2	9.8	-
생산자물가	-0.2	2.6	4.2	3.6	5.0	3.8	6.7	6.4	6.5	-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2012년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원화가치 상승 : 국제 원유와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압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원화 절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 가치 상승세 지속
- 2012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보다 낮은 3.5% 전망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소비자물가	2.8	2.9	4.3	3.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6) 고용 : 회복세 둔화

○ (현황) 2011년 수출 호조세와 제조업 경기 활성화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하락세를 나타냄

- 2011년에는 민간부분의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취업자수가 1/4분기 42만3,000명, 2/4분기 40만2,000명으로 호조
-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11년 1/4분기 구직활동의 증가로 4.2%로 상승했다가 2/4분기 3.4%로 하락
  - 반면 청년 실업률은 1/4분기 8.8%로 2010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분기에 7.9%를 기록하여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7월
취업자증가수	-72	132	433	369	358	323	423	402	335
민간부분	-264	107	424	567	478	402	423	436	329
실업률	3.6	4.7	3.5	3.5	3.3	3.7	4.2	3.4	3.3
청년층	8.1	9.5	7.7	7.6	7.1	8.0	8.8	7.9	7.6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2년 선진국의 경기 둔화 및 국내 투자 위축 등으로 실업률은 2011년보다 소폭 상승한 3.6%로 전망

- 선진국 경기 둔화 : 미국의 재정 긴축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선진국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 및 제조업 분야의 고용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국내 투자 위축 :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성장 둔화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해 신규 취업자수는 20만명 대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0.1%p 상승할 전망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실업률	3.6	3.7	3.5	3.6

자료 : 통계청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7) 원화 환율 : 원화 절상 지속 전망

○ (현황) 2011년 원/달러는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달러 공급 우위 기조가 겹쳐 원화 가치 강세가 지속

- 원/달러 :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건조한 경제성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지속되어 원화가치 상승 지속
  -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어 글로벌 달러 약세는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11년 8월 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대됨.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두드러져 달러화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 시현
- 원/엔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에 대한 회복기대감 상승, 주요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 안전자산인 엔화의 수요가 증대로 엔화 강세를 보여 원/엔 환율도 상승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추이 >

	2010년			201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원/달러	1,122.2	1,128.1	1,146.2	1,119.4	1,119.5	1,120.5	1,084.8	1,084.1	1,080.9	1,058.5	1,074.1
원/100엔	1,371.1	1,366.6	1,376.7	1,356.3	1,351.0	1,376.2	1,304.8	1,333.6	1,342.8	1333.4	1,391.4

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 환율임.

○ (전망)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과 초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지속되어 2012년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 될 전망이다

- 달러 신뢰도 하락, 초저금리 유지 기조에 따른 달러캐리트레이드 확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성장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금리인상 기대감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한편, 유럽재정위기 지속과 금융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 등으로 절상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환율 전망 추이>

(단위:원)

	2009	2010	2011년(E)	2012년(E)
원/달러	1,276.4	1,156.0	1,085.0	1,050.0

자료 : 한국은행. 주: 평균 환율임.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8. 금리 :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 폭은 축소

○ (현황) 2011년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수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혼조세를 이어감

- 시중금리는 일본, 유럽, 미국으로 이어진 대외불안 가중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혼조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2011년 기준금리를 0.25%p 세 차례에 걸쳐 3.25%로 인상
- 그러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1년 1/4분기 3.80%에서 8월 3.57%로 회사채 3년물 AA-금리도 동기간 4.59%에서 4.29%로 떨어짐

< 국내 기준금리와 주요 시중금리 추이 >

(%)

구 분	2009	2010년					2011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기준금리	2.16	2.00	2.00	2.25	2.33	2.16	2.78	3.08	3.26	3.25
국고채3년	4.04	4.14	3.74	3.70	3.30	3.72	3.80	3.68	3.77	3.57
회사채										
3년										
AA-	5.81	5.25	4.61	4.63	4.16	4.66	4.59	4.46	4.48	4.29
BBB-	11.76	11.31	10.64	10.58	10.21	10.68	10.61	10.50	10.47	10.27
CD	2.63	2.86	2.47	2.62	2.73	2.67	3.14	3.46	3.59	3.59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기준금리는 기간별 무담보콜금리(전체)의 평균임.

○ (전망) 2012년 경기 회복세 둔화와 해외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도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국내외 경기 회복 둔화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은 제약될 것으로 보임
- 이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1년 연평균 3.8%에서 2012년에는 4.0%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1년 -1.7%p까지 확대되었던 마이너스 실질금리(국고채 3년물-물가상승률)는 장기금리의 상승과 물가상승폭 하락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

(평균,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국고채 3년	4.0	3.7	3.8	4.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III.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2012년에 국내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2011년 4.2%에서 2012년에는 4.0%로 하락할 전망
- 특히,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재정 건전성 우려, 가계발 복합불황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 (정책과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등이 요망됨

-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정책 지속
  -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 마이스터고 등 기능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턴십과 직장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
  - 중소기업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제도의 수정 또는 추가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마련
  -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
-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 당국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 및 규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미시 및 시장원리적인 접근 필요
  - 가계는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
-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 강화 및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다자 협력 사업 추진
  - 북한에 대한 인도적·비정치적 사업 추진을 통한 관계 회복 노력 필요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 지속

< 2012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10	2011(E)	2012(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6.2	4.2	4.0
	민간소비(%)	4.1	3.3	3.4
	건설투자(%)	-1.4	-3.6	0.5
	설비투자 (%)	25.0	8.8	7.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82.1	160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303	240
	수 출 (억 달러)	4,664	5,597	6,381
	(증가율, %)	28.3	20.0	14.0
	수 입 (억 달러)	4,252	5,294	6,141
	(증가율, %)	31.6	24.5	16.0
소비자물가(평균, %)		2.9	4.3	3.5
실업률(평균, %)		3.7	3.5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56	1,085	1,050
국고채 수익률(3년)		3.7	3.8	4.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6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9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7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7일	9월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05	2.00	-0.05%p
	엔/달러	92.93	88.43	81.19	77.62	-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004	-	-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415	11,106	-309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763	8,617	-14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5	-	-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71.8	-	-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33.5	-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7일	9월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9.29	90.10	0.81\$
	Dubai	78.06	73.14	88.80	108.73	106.32	-2.41\$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9.81	335.75	-4.0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